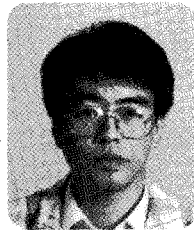


# 이유자돈의 손실을 줄이자



이재춘 원장  
한별 피그클리닉

겨울철 추위로 인해 돈사내 환기량이 최소화되면서 자칫 돈사내 병원균이 증가하기가 쉽다. 이와 더불어서 돈사내 환경 관리가 세밀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특히 자돈은 그 영향을 쉽게 받아 돈군 전체의 건강 상태가 부실해지기 쉽다.

아직은 기온이 낮고 또한 앞으로 일교차가 커지는 계절이 다가오게 되므로 돈군의 건강 유지에 각별히 신경을 써야한다.

특히 이미 여러 농장에서 효과가 입증되고 있는 초기 이유자돈사를 적절하게 운용할 경우 이유에서 비육 출하과정이 원만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에 대한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고 본다.

## 1. 이유 자돈의 취약성

최근에는 농장간 차이는 있지만 대체로 3주령을 전후해서 이유가 이루어진다. 이 시기의 자돈은 면역력이나 환경 적응력, 사료 소화능력 등 제반 신체조건이 성돈에 비해 매우 취약하다.

또한 이유와 함께 돈사이동과 합사, 백신접

종 등이 이루어지는 시기이므로 이에 수반되는 각종 스트레스가 집중되는 시기이다.

따라서 이러한 자돈의 생리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그에 맞는 시설과 환경을 제공하고 적절한 관리가 뒷받침 될 때 이후 자돈의 성장률을 극대화시킬

수 있으며 폐사율은 최소화 될 것이다.

## 2. 이유자돈을 위한 관리 포인트

이유자돈을 위한 관리 포인트는 크게 네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는 취약한 면역력을 커버해 주기 위한 관리이다.

둘째는 모유에서 사료로 교체되는 과정이 원만히 이루어지도록 해주는 관리이며, 셋째는 환경관리인데 그 중 특히 이유직후의 온도를 30℃로 맞추어 주고 일교차가 거의 없도록 유지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넷째는 이유와 동시에 가해지게 되는 각종 스트레스를 얼마나 줄여 주는가이다.

사실 이유 후 이러한 관리만 잘 이루어진다



▲최근에는 농장간 차이는 있지만 대체로 3주령을 전후해서 이유가 이루어진다. 이 시기의 자돈은 면역력이나 환경 적응력, 사료 소화능력 등 제반 신체조건이 성돈에 비해 매우 취약하다.

면 육성단계에서의 생산성은 매우 높아지게 될 것이고, 시설 회전율도 개선이 될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이러한 관리조건을 충족 시켜 줄 것인가? 그 해답이 바로 초기 이유자돈사에 있다고 할 수 있다.

### 3. 초기 이유자돈사의 필요성

이유자돈에서 특히 가장 문제되는 시기는 이유 후 4주 정도로 보는데, 앞서 언급한 네가지 관리 포인트를 이 시기에 집중적으로 적용 시키기 위해서는 별도의 초기 이유자돈사가 마련되는 것이 여러모로 유리하다.

즉 이유 초기에 동일한 일령층의 자돈들만을 한공간에 수용하여 동일한 환경조건을 제공해 주고, 관리를 집중하게 되면 이유후 성장 정체, 또는 위축, 폐사 등의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으며, 육성, 비육단계에서도 질병의 피해를 거의 받지 않고 균일하게 키워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 4. 초기 이유자돈사의 운영

### 가. 시설규모

초기 이유자돈사의 시설은 이유 후 4주까지의 자돈을 수용할 수 있으면 된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주간 배치단위 이동시 모든 200두 규모의 농장인 경우 매주 80~100두 정도의 자돈이 이유가 되므로 1

주간의 돈방 휴식기간을 고려하면 전체 400~500두의 자돈을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

만약 2주간 그룹관리를 하게 될 경우 돈방 휴식기간을 2~3일 정도로 하고 체류기간을 25~26일 정도로 한다면 320두~400두 정도를 수용할 수 있으면 된다.

입식되는 자돈은 배치 단위 두수에 따라 한 돈방의 수용두수를 결정할 수 있는데 한 배치를 여러 작은 돈방으로 나누어 수용할 수도 있고 아니면 100두 정도의 큰 단위로 한

〈표1〉 단계별 두당 최소 소요 면적

단 계	두당 최소소요 면적(m <sup>2</sup> ) (전면 슬랫인 경우)
분만틀(포유돈+자돈)	3.3
이유자돈	0.3
육성돈	0.5
비육돈	0.8
임신돈	1.4
웅돈	7.0



돈방을 이루도록 할 수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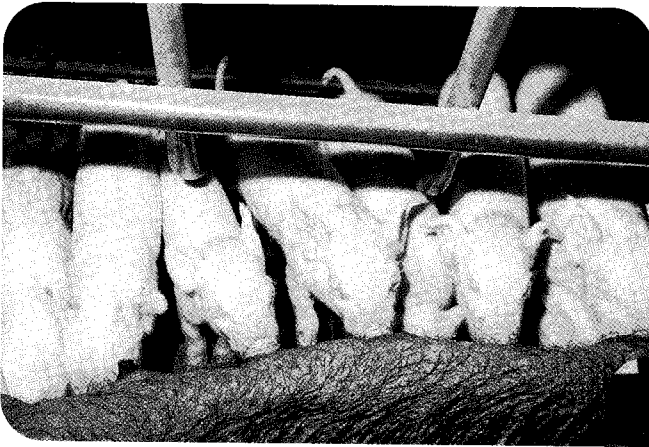
초기 이유자돈사의 경우 단위 면적당 공사비용은 비교적 많이 소요되지만 면적당 많은 두수를 수용할 수 있으므로 수용 두수 대비 공사비용은 상대적으로 부담이 적다. 오히려 적은 면적에 많은 두수를 수용하게 되므로 필요한 건축부지 면적도 줄어들게 된다.

이에 대한 대처 방안으로 항생제 투약은 근본적 해결책이 아니며, 가장 좋은 방법이 울인 올라웃이 라고 할 수 있다. 울인 올라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초기 이유자돈사의 효과가 상당 부분 감쇠 될 것이다.

## 5. 초기 이유자돈사에서의 관리사항

### 가. 백신접종

쾌적하고 위생적인 환경하에서 백신접종을 하게되면 자돈의 백신접종 스트레스를 최소화 할 수 있으므로 자돈에 집중되는 백신접종은 실내 환경조건이 좋은 초기 이유자돈사에서 실시하는 것이 유리하다.



● 초기 이유자돈사는 반드시 울인 올라웃이 되도록 해야 한다. 그 이유는 이때가 자돈의 면역력이 가장 취약한 시기이므로 가급적 돈사의 오염을 최소화한 상태에서 병원균의 일령에 따른 수직전파를 최소화 해야하기 때문이다.

### 나. 시설의 운영

초기 이유자돈사는 반드시 울인 올라웃이 되도록 해야 한다. 그 이유는 이때가 자돈의 면역력이 가장 취약한 시기이므로 가급적 돈사의 오염을 최소화한 상태에서 병원균의 일령에 따른 수직전파를 최소화 해야하기 때문이다.

신축돈사의 경우 처음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가도 오래 사용을 하다 보면 병원균의 축적으로 인해 잦은 병치레를 하는 경우를 흔히 보게 된다.



일부 농장에서는 이유당일에 백신접종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 이유 스트레스와 백신접종 스트레스가 겹쳐 상당히 좋지 않은 결과를 초래 할 수 있다. 따라서 반드시 이유 하는 날과 겹치지 않도록 접종일자를 조정해야 한다.